

전북 '100년 유산' 이음 프로젝트

연구책임

장세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신지원 연구원

J THINK

이슈브리핑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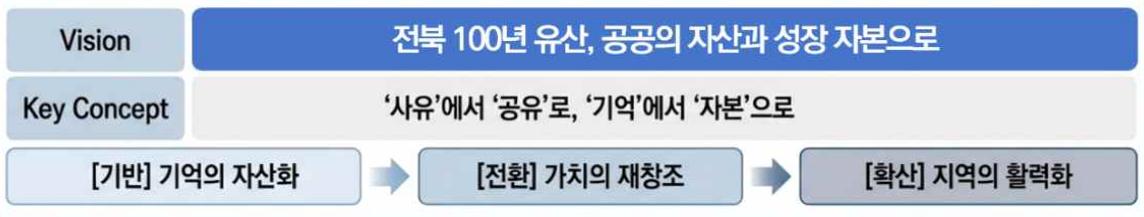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 지자체가 주관하는 현대적 형태의 지역 축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가 춘향제이며, 2031년에 100주년이 됨. 2033년은 변산해수욕장이 개장한 지 100년이 되는 해임
- 100년은 세대의 완성(3세대)이자, '살아있는 기억'이 '공식적 역사'로 전환되는 분기점임. 지나온 1세기를 성찰하고 새로운 1세기의 비전을 선포하는 기준이 100년임. 특히 100년 된 장소·축제는 도시 품격을 높이는 브랜드 자산이자, 관광객을 유인하는 킬러 콘텐츠임. 따라서 흠어진 역사를 수집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낡은 시설이 아닌 100년 역사를 상징하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함
- 향후 10년(2026~2035년)은 일제강점기 중반(1926~1935)에 형성된 근대 시설, 교육, 문화 분야의 유산이 대거 100주년을 맞이하는 시기임

유형	전북 100년 유산 사례
산업·경제	섬진강댐, 양곡창고, 뜯다리 부두, 만경대교, 해망굴, 임피역, 서도역 등
생활·건축	일본식 가옥, 한옥마을(형성기), 익산경찰서, 조양식당, 구 십자의원 등
교육·종교	전주여고, 이리농림학교, 원불교 익산 성지, 지역 토박이 교회 등
문화·기억	춘향제, 변산해수욕장, 군산 제빵 문화, 전주 행원, 익산 진미식당 등

- 100년 역사를 '사유에서 공유로, 기억에서 자본으로' 전환하는 <전북 100년 유산 이음 프로젝트>가 필요함. 비전은 '100년 유산을 전북의 든든한 공간, 공공의 자산과 성장 자본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기억의 자산화, 가치의 재창조, 지역의 활력화)를 실현한 세부 사업을 제안함

전북 백년유산(百年遺産) 이음 프로젝트: 비전, 목표 및 세부 사업

비전과 목표 (Vision & Goals)



세부 사업 (Detailed Projects)

[기반] 기억의 자산화	[전환] 가치의 재창조	[확산] 지역의 활력화
① 발굴 및 인증제 ② 디지털 아카이브 ③ 사라진 유산 디지털 트윈 복원	④ 백년의 살롱 조성 ⑤ 춘향제 리브랜딩 ⑥ 다크투어리즘 예술화	⑦ 여행 여권 스탬프 투어 ⑧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⑨ 미래유산 엑스포 개최

Google Gemini 활용하여 그림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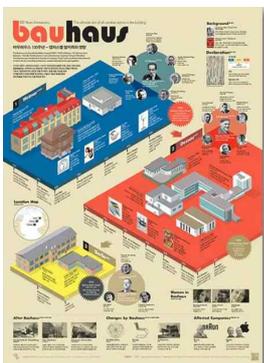
I . 100년의 의미와 기념의 효과

10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 첫째, 100년이라는 시간은 세대의 완성을 의미함.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100년은 3세대를 넘어 4세대로 이어지는 시간임. 1세대와 1세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사라지고 선대의 가치를 후대가 계속해서 계승함을 보여주는 시간이 100년임
- 둘째, 10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살아있는 기억(Memory)이 공식적인 역사(History)로 전환되는 분기점임. 100년이 지나면 개인의 주관적 경험담은 사라지고, 사회가 합의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짐. 즉, 유산으로서의 정통성을 획득하는 시점이 100년임
- 셋째,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임. 100년은 지난 1세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1세기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는 상징적인 숫자임

100년 기념의 효과와 사례

- 100년 기념 사업은 장소 브랜딩 효과가 큼. 100년이나 된 축제·장소가 있는 도시는 생각을 달리하게 됨. 도시에 깊이와 품격이 더해짐. 방문객 유입에 따른 경제 활성화도 기대됨. 100주년 행사, 역사교훈여행(Dark Tourism) 등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킬러 콘텐츠가 됨. 기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행정이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이 경험이 지역의 자산이 되는 효과도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바우하우스 100주년이 있음. 바우하우스는 1919년 설립된 디자인 학교로 100주년을 맞아 독일 전역에서 기념 사업이 진행되었음. 이를 계기로 독일 전체가 '현대 디자인의 발상지'로 알려지게 되었고, 바우하우스 박물관이 신축되면서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이 확보되었음
- 국내 공공 사례로는 1925년 개통한 서울역(구 경성역)을 '문화역 서울 284'로 조성하는 사업과 개항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재생한 군산 근대문화 거리 조성 사업 등이 있음. 문화 거점 시설(Anchor Facility)이 조성된 군산시 사업을 통해 쇠퇴하던 원도심이 대표적인 근대문화 관광지로 탈바꿈됨
- 민간 사례로는 하이트진로 100주년(2024년) 사업이 있음. 진로 소주의 100주년을 맞아 복고 마케팅으로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하였는데, 오래된 브랜드가 아니라 힙(Hip)한 브랜드로 젊은 세대에게 재인식되는 효과를 거둠



바우하우스 100주년 포스터



문화역 서울 284



진로소주 100주년 광고

II. 공적 기념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

공적 측면에서의 100년 기념의 이유

- 100주년을 공적으로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 정체성과 관련됨. 지역의 고유한 역사를 발굴하여 주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됨. 또한 단순히 과거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도시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무대가 되기도 함
- 기록 측면에서도 공적인 기념이 중요함. 100주년 사업은 흩어져 있는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 이 시기를 놓치면 구술 증언이나 사진 자료 등이 영구히 소실될 수 있음. 기록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낡고 오래된 시설을 흥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유산으로 만들어 줌. 즉 100년 기념은 기록을 넘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

100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념 방향

- 100년 유산을 기념하는 국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임. 100주년을 기념하는 두 부처의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100년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만들거나, 지역 브랜딩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함. 즉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중심임. 국가유산청은 100년이 된 대상에 집중하여 가치를 정립하고, 국가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지정하며, 보존·복원 등 하드웨어적인 접근과 역사적 맥락이 강조된 사업을 추진함

1. 100년의 의미와 기념 효과

□ '10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세대의 완성 (A Full Cycle) 30년 x 3세대*	기억→역사 (Memory→History)	성찰과 도약 (Reflection & Leap)
지속가능성 검증, 가치 계승	주관적 경험→객관적 평가, 정통성 확보	1세기 정리, 미래 비전 명분

□ 100년 기념의 효과와 사례

100년 기념 효과 → 장소 브랜딩 → 경제 활성화 → 사회적 자본 확충

바우하우스 100주년 현대 디자인 발상지 브랜딩	서울역 / 군산 근대거리 도시 재생, 문화 앵커 시설	하이트진로 100주년 민간 레트로 마케팅, 합판 브랜드
--------------------------------------	---	--

2. 공적 기념의 필요성과 정부 정책 방향

□ 공적 측면에서의 기념 이유

- ☑ 지역 정체성 확립 (Identity Establishment)
- ☑ 기록과 아카이빙 (Archiving)
- ☑ 도시 재생 명분 (Urban Regeneration Rationale)
- ☑ 미래 비전 선포 (Future Vision Declaration)

□ 국가 차원의 기념 방향 (문체부 vs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S/W 중심)	국가유산청 (역사·H/W 중심)
기조: 문화를 통한 기념·확산 ① 3.1운동 100주년: 콘텐츠 공모(웹), 다큐 투어리즘 ② 한국영화 100년: 아카이빙·복원, 학술·전시 ③ 어린이날 100주년: 통합 브랜딩, 담론 형성	기조: 역사의 증명과 보존 ① 근대역사공간: 면(Area) 단위 등록, 활용 장려 ② 항일독립유산: 전수 조사, 민간 유물 등록 ③ 미래유산 제도: 100년 미만 가치 발굴
(참고) 로컬100: 지역 유산 브랜딩	

Google Gemini 활용하여 그림 제작

III. 100년 유산의 분류와 '전북 100년 유산'

100년 유산의 분류

- 단순한 기능 분류가 아닌, 가치와 이야기 중심으로 100년 유산을 분류함

유산 분류	스토리텔링 방향	세부 유형
산업·경제 유산	땀과 노동의 100년	• 교통·물류시설, 농업·수리시설, 상업·생업 현장
생활·건축 유산	삶과 공간의 100년	• 주거 공간, 공공·관공서, 생활 조경
교육·종교·커뮤니티 유산	정신과 배움의 100년	• 교육시설, 종교, 사회단체
문화·예술·기억 유산	흥과 이야기의 100년	• 축제·행사, 기록·기억, 음식·기술, 여가·관광

유형별 '전북 100년 유산' (예시)

- 4대 분류 체계(산업·경제, 생활·건축, 교육·종교·커뮤니티, 문화·예술·기억)를 기준으로 향후 10년 이내 (2026~2035년)에 100년이 되는 전북의 유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0년 내(2026~2035) 100년이 되는 '전북 100년 유산' 예비 목록〉

분류	유산 명칭	100주년 (추정)	주요 특징 및 의의
산업·경제 (땀과 노동)	수리·농업 섬진강댐(구 운암댐) 및 운암발전소	2029~ 203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9년 운담댐 준공. 수력발전소는 1931년 준공(대한민국 최초의 유역 변경식 수력발전소) • 식량 수탈과 근대 에너지산업의 양면성을 보여줌
	농업·창고 삼례 양곡창고 (현 삼례문화예술촌)	2020년대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경평야 수탈의 전초기지: 1920년대 건립 추정 • 수탈 창고에서 예술 창고로 재생
	교통·항만 군산 내항 뜯다리 부두(부잔교)	203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수간만을 극복한 근대 항만 시설 • 제3차(1926~1932), 제4차(1936~1938) 축항공사를 통해 건설(국가등록문화유산) • 미곡 반출의 상징적 현장
	교통·교량 구 만경대교	203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와 군산을 잇는 쌀 수송로 • 근대 교량건축기술과 수탈역사 증언 • 주민에게 새창이다리로 불림
	교통 군산 해망굴	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내항과 시내를 잇는 터널로 1926년 준공(국가등록문화유산)
	교통·역사 임피역	203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농촌 간이역사의 전형 양식 • 1924년 간이역으로 영업 개시. 1936년 보통역 승격, 역사 신축 • 소설가 채만식의 문학적 배경(국가등록문화유산)
	교통·역사 서도역	203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2년 지어진 오래된 목조 간이역 • 최명희 「혼불」의 주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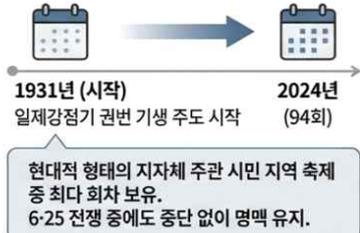
분류		유산 명칭	100주년 (추정)	주요 특징 및 의의
생활·건축 (삶과 공간)	주거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구 히로쓰 가옥)	2025~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5년 사용 승인(건축대장 기록) •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부유층 주택 • 적산가옥의 관광 자원화 대표 모델
	마을·지구	전주 한옥마을 (교동·풍남동 일대)	2030년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확장 맞선 자생적 한옥 지구 • 근대 도시계획에 따른 개량 한옥촌
	주거	조양식당	20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의 유일한 근대 일본식 건물 • 1930년대 일본식 목조건축양식 반영 • 해방 후 한식당으로 최근까지 운영, 현재는 복합문화공간 재생
	병원	군산 구 십자의원	203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식 가옥에 서양식 주거공간의 절충된 독특한 형식(1936년 최초 건립) • 1952년부터는 군산시 소아과 전문병원으로 운영(국가등록문화유산)
교육·종교 (정신과 배움)	학교	전주여자고등학교	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여성 공교육의 시작점(전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학교	구 이리농림학교 (전북대특성화캠퍼스)	203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2년 4월 이리농림학교 설립 • 한국 농업 교육의 산실 • 붉은 벽돌 조적조 건물의 건축미(국가등록문화유산)
	종교·성지	원불교 익산 성지 (구 본관, 공회당 등)	2024~203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불교 총부 건설 후 건물 건립 • 자생적 민족 종교의 근대 건축물군
	종교·지역	지역 토박이 교회들 (김제, 정읍 등)	2020~203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 • 1세대 선교 이후 자생적으로 설립된 시골 교회들
문화·지역 (흥과 이야기)	축제·의례	남원 춘향제	203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존 최장수 현대적 형태 지역 축제 • 민족의식 고취와 예술 승화의 100년
	여가·관광	변산해수욕장	1933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경관이 아닌, 1933년 개장 '한국 최초의 계획된 해수욕장' 중 하나 • 근대적 여가 생활(바캉스)의 시작점
	업(業)의 뿌리	군산 제빵 문화 (이즈모야→이성당)	202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0년대 이즈모야 기술의 전승 • 기업 창립일은 아니나, '문화의 100년'으로 해석
	식당	전주 행원(식도원)	202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최초 조선요리 전문점(식도원) • 현재 한옥카페 및 공연장으로 운영
	식당	익산 진미식당	203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1년 개업. 황등 육회비빔밥 원조 • 3대째 가업을 이어온 노포

출처: (섬진강댐) 디지털정읍문화재단, (삼례 양곡창조) 디지털완주문화대전, (군산 내항뜰다리) 디지털군산문화대전, (구 만경대교) 투데이군산(2024.7.17), (해망굴) 국가유산포털, (임피역) 군산유산포털, (서도역)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디지털군산문화대전, (고창 조양식당) 국가유산포털, (군산 구 십자의원) 국가등록문화유산, (옛 이리농림학교) 디지털익산문화대전, (원불교 익산성지) 투어전북(<https://tour.jb.go.kr>), (남원 춘향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변산해수욕장)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부안군 편), 열린관광지(한국관광공사), 부안독립신문, (군산 제빵문화) 디지털군산문화대전, (진미식당)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인증(2018년)

주: 현재 내용은 웹사이트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실제 유산별 조사에서 역사적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남원 춘향제: 대한민국 현존 최장수 지역 축제의 위상과 근거

1. 왜 '가장 오래된 축제'인가?



2. 비교: 역사적 유래 vs 현대적 회차

강릉 단오제 등	남원 춘향제
민속적 유래/전통 의례 → 천 년 이상 역사	조직적인 현대 축제 형태 정착 및 회차 지속 → 1931년부터 체계화
지역의 민속축제	
지역 전통놀이 통합 → 대부분 1960년대 이후 시작	

3. 춘향제의 특별한 가치

- 민간 주도의 시작**
- 자발적 성금 모금으로 개최
- 중단 없는 역사**
- 국가적 위기에도 단절 없이 지속

요약: 2031년 100주년의 상징성



대한민국 '100회'를 맞이하는 첫 번째 지역 축제

지자체/시민 주최 현대적 지역 축제 중 회차가 가장 오래된 것은 춘향제
2031년 100주년은 축제 역사상 엄청난 상징성 보유.

Google Gemini 활용하여 그림 제작

○ 지자체가 주관하는 '현대적 형태의 지역 축제' 중에서 춘향제가 가장 오래됨

- 동아일보 1931년 6월 21일자에 남원 유지와 권변 기생이 성금을 모아 춘향사를 건립했다는 사실이, 6월 22일자에 단오를 맞아 열린 첫 제사에 전북 인근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음.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구축한 '지역문화포털'(www.nculture.org)에는 "1931년 춘향사를 세우고 단오에 처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작"한 남원춘향제가 "우리나라 지역 축제의 효시"라고 기록됨

○ 일제강점기 말기나 한국전쟁 기간에도 제사를 거르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은 가장 오래된 회차를 갖게 되었고, 2031년 춘향제는 우리나라에서 '100회'를 맞이하는 첫 번째 지역 축제임

- 오래된 축제 기준을 민속적 유래나 전통 의례로 본다면 다른 축제가 언급될 수 있음. 강릉 단오제의 경우 유래만 따지면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나, 단오제라는 현대적 축제 형태의 기록으로 보면 춘향제가 더 앞선 시기임

전북백년유산

변산해수욕장 100년: 서해안의 진주, 시대를 비추다

1. 변산해수욕장의 역사: 100년을 향한 발걸음



2. 타 해수욕장과 역사 비교: 선구자 그룹의 일원

해수욕장	최초 개장(공인) 시기	특징
부산 송도	1913년	대한민국 1호 공설 해수욕장
원산 송도원	1910년대	최초 해수욕장 (북한)
대전	1932년	변산과 비슷한 시기에 개장
변산	1933년	호남권 최초 근대식 해수욕장 (선구자 그룹)
부산 해운대	1965년	공식 해수욕장 지정 기준 (이전부터 해수욕)

국내 해수욕장 '1세대' 또는 '선구자 그룹'. 호남 지역 초기 해수욕장 문화 확산의 최초 거점.

3. 개장 당시의 선도적 역할: 새로운 여가 문화의 상징

- 근대적 여가 문화 도입**
- 바다를 '휴양과 관광의 공간'으로 인식 전환
- 지역 관광의 허브**
- 철도 연계 교통, 호남권 신흥 부유층 및 일본인 피서지
- '모더니티'의 상징**
- 서구적 라이프스타일 체험의 선도적 공간

Google Gemini 활용하여 그림 제작

IV. '100년 유산' 이음 프로젝트 구상

비전과 목표

- 개별적인 유산별 100주년 행사는 자칫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공산이 큼.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총괄적인 '시간여행 브랜딩'으로 묶는 사업이 필요함
- (비전) 100년 유산을 전북의 든든한 곳간으로 만들자는 의미로, 비전을 "100년의 기억, 공공의 자산과 전북의 성장 자본으로" 설정함
- 전북의 100년 된 건물, 이야기, 노포(오래된 가게) 등은 개인의 소유물이거나, 혹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잉여물인 경우가 많음. 이 비전은 100년 유산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임

〈100년 유산 이음 프로젝트 비전의 핵심 개념〉

핵심 개념	주요 내용
'사유'에서 '공유'로	• 개인이 소장하거나, 개인만이 기억해 온 100년의 역사를 전북 도민 모두가 누리는 지역의 자원으로 만들
'기억'에서 '자본'으로	• 회상하고 기념하는 대상을 넘어, 관광객을 부르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발전의 기초 자본(Seed Money)으로 삼음

- (목표) 문화적 깊이(기억)가 경제적 효과(자산)로 창출되도록 기반 조성→가치 창출→연계 활용으로 설정함

〈100년 유산 이음 프로젝트 목표의 세부 내용〉

목표	세부 내용
[기반] 기억의 자산화	•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이자 문화적 사회간접자본으로 구축
[전환] 가치의 재창조	• 오래된 시설·행사에 디자인, 스토리텔링, 예술을 입혀 복고, 원조 등 현대적이면서 매력적인 브랜드 상품으로 재가공
[확산] 지역의 활력화	• 과거의 공간이 청년 창업과 예술 활동의 무대가 되어,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실질적인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활용

프로젝트 세부 사업(안)

① 전북 100년 유산 발굴과 인증제

- 100주년을 맞이할 건축물, 장소, 노포, 축제 등을 전수 조사하여 '전북 100년 유산'으로 공식 인증하고 상징물을 부착함. 소유주에게 개보수 지원금 및 홍보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등록을 유도함. 또한 남원 춘향제 자체의 국가 무형유산 등재 등 100년 유산 중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의 국가유산화를 추진함

② 100년 기억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민간에 흩어진 100년 전 사진, 일기, 엽서, 졸업앨범 등을 수집하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 구술 채록 프로젝트를 병행, 100년 전후의 시기를 기억하는 지역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녹음·영상화하여 살아있는 역사로 저장함. 구축된 데이터는 향후 영화, 웹툰, 드라마 제작자에게 오픈 소스로 제공함

③ 사라진 100년 유산의 디지털 트윈 복원

- 화재나 개발 등으로 사라진 1920~30년대 전북의 주요 상징 공간을 메타버스로 복원함. 가상 공간에서 100년 전 전북 거리를 걸어보는 체험형 자산으로 활용함

〈10년 내(2026~203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전북의 사라진 유산 사례〉

사라진 유산	주요 특징
옛 전주역사 (2세대, 붉은 벽돌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9~1930년, 전라선 철도 개량 공사와 맞물려 준공 • 1914년 지어진 1세대(협궤) 역사가 좁아 1929년 표준궤로 철도를 넓히면서 새로 지은 붉은 벽돌의 서양식 건물. 전주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장년층 전주시민에게 전주 역하면 떠오르는 추억의 장소이었으나, 1981년 현재의 한옥 역사로 이전하면서 철거
1931년 제1회 춘향제 제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은 화려한 축제지만, 1931년 첫 시작은 남원 권번 기생들이 주축이 되어 춘향 사당에서 올린 소박하고 엄숙한 제사 • 지금과 다른, 당시의 제사상 차림, 의복, 참여했던 인물의 모습 재현

④ (공간) 유희공간을 '100년의 살롱'으로

- 100년 된 양곡창고, 양조장 등을 매입·임대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함. 박물관이 아닌 살롱(Salon)을 지향하는데, 1930년대 모던 보이·걸 컨셉의 카페, 재즈바, 공유 오피스 등으로 개조하여 MZ세대가 사진 찍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함

⑤ (축제) 춘향제 100주년 리브랜딩: 'The Love 1931'

- 가장 오래된 현대 축재인 춘향제의 100주년을 맞아 축제의 규모화, 글로벌화를 추진함. 예를 들어, 1931년(1회) 당시의 춘향제 모습 재현, 사랑 테마의 미디어아트 쇼, 한복과 근대복(개화기 의상)이 어우러지는 코스튬 파티 등 100년과 사랑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굴·개최함

⑥ (관광) 역사교훈여행의 예술화: '치유의 길'

- 군산(수탈 항만)-김제(평야·교량)-완주(창고)로 이어지는 수탈의 역사를 극복과 생명력의 관점에서 재해석함. 뜯다리 부두 위에서의 선셋 재즈 공연, 양곡창고에서의 현대미술 전시 등 아픔의 현장에서 예술 치유를 경험하는 고품격 투어 상품을 개발함

⑦ 전북 미식 100년 벨트와 페스티벌

- 전북 100년 유산의 특화 주제로서, 100년이 되는 전북 음식과 식당을 묶은 (가칭)'전북 미식 100년 벨트'(예: 전북 100년 술길)를 구축하고, 전북 100년 여행 투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함. 또한 100주년 음식·식당을 연계한 미식 페스티벌(예: 1931 남원추어탕 외식 100년, 고창 풍천장어 보양 미식 100년)을 개최함

⑧ 로컬 크리에이터 '100년 상회' 육성

- 단순 지원금을 넘어, 100년 이야기를 지역 특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청년 기업가가 양성되도록 창업을 지원함. 예를 들어, 100년 빵집(1920년대 레시피를 복원한 빵 개발), 100년 사진관(근대 습판 사진 기술로 찍어주는 사진관), 100년 굿즈(100년 된 문양(타일, 창살 등)을 활용한 디자인 상품 제작) 등이 있음

⑨ 전북 미래유산 엑스포 개최

- 춘향제가 100주년을 맞는 2031년, 또는 군산 개항 시설, 변산해수욕장 100주년이 겹치는 2033년에 맞춰, 전북의 지난 100년과 미래 100년을 보여주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함. '전북 방문의 해' 등을 활용, 전북을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의 거점으로 각인시키고 대규모 외부 방문객을 유치함

〈10년 내(2026~2035년)에 100주년이 되는 식당·근대음식 사례〉

유산 예시	주요 내용
군산 이성당	• 1920년대 이즈모야 기술의 전승, 1945년에 이성당 개업
전주 행원(식도원)	• 전주 최초 조선요리 전문점(식도원)으로 1928년 개업(현재 카페)
익산 진미식당	• 1931년 개업(고(故) 조여아 할머니가 황등장(黃登場)에서 비빔 밥에 육회를 얹어내는 음식 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시작). 황등 육회비빔밥 원조로, 3대째 가업을 이어온 노포
진안 성수주조장	• 2025년에 100주년, 현재 2026년 기준 창립 101주년 •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정부 납품 자격을 얻었을 만큼 역사적 가치가 큼. 최근 전북의 가장 대표적인 100년 양조장으로 자리매김
근대 중화요리	•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유입된 화교들이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중식당 운영 시작 (빈해원(국가등록문화유산) 등)
곰소 찻갈	•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 일제가 군용 식량 확보를 위해 곰소항 일대를 매립, 곰소 염전을 조성하던 시기와 맞물려 형성
남원 추어탕	• 민간에서 즐겨먹던 보양식이었으나, 1931년 제1회 춘향제가 시작되면서 광한루원 찾는 참례객 대상으로 식당이 생김 • 남원 추어탕이라는 브랜드가 외식화되던 시기
군산 박대 구이	• 1920~30년대 수산물 집산지였던 해망동과 서부시장 일대에서 박대를 말려 구워 먹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짐

출처: (군산 이성당) namu.wiki/w/이성당, (전주 행원) www.hcnews.or.kr/news/48121, (익산 진미식당)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포털, (진안 성수주조장) 전주MBC(2025.5.22), (근대 중화요리)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곰소 찻갈) 부안군지, (남원 추어탕) 남원시사,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식생활 문화」, (군산 박대구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군산의 어촌과 포구」

주: 현재 내용은 웹사이트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 실제 유산별 조사에서 역사적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

〈전북 100년 유산 프로젝트 세부 추진 과제〉

단계와 목표	세부 사업(안)	주요 내용
(1단계: 기반 조성) 기억의 자산화 “흠어진 100년을 찾아 공공 자산으로”	① 전북 100년 유산 발굴과 인증제	• 10년 내 100주년 도래 대상 전수조사 및 도지사 인증 • 대상: 건축물, 노포, 축제, 자연유산 등
	② 100년 기억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민간 소장 100년 기록물(사진, 일기 등) 수집 및 DB화 • 지역 어르신 구술 채록
	③ 사라진 100년 유산의 디지털 트윈 복원	• 화재·개발로 소실된 1920~1930년대 랜드마크 가상 복원 • (예) 전주역사, 사라진 근대 가옥 등
(2단계: 콘텐츠화) 가치의 재창조 “오래된 유산에 디자인을 입혀 매력적 상품으로”	④ 유희공간을 ‘100년의 살롱’으로	• 양곡창고, 폐교, 양조장 등을 매입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 박물관이 아닌 MZ세대의 ‘살롱’ 지향
	⑤ 춘향제 100주년 리브랜딩: ‘The Love 1931’	• 우리나라 최초 100회 축제(2031년)에 부합하는 축제의 규모화와 글로벌화 추진
	⑥ 역사교훈여행의 예술화: ‘치유의 길’	• 군산(항만)-김제(평야)-완주(창고) 잇는 수탈 역사의 재해석 • 슬픔을 넘어, 예술로 극복과 생명력 강조
(3단계: 경제적 활력) 지역의 활력화 “역사문화 자원을 지역 활력의 동력으로”	⑦ 전북 미식 100년 벨트와 페스티벌	• 100년 음식 묶은 전북 100년 미식 벨트 • 100주년 식당·음식 연계 미식 페스티벌
	⑧ 로컬 크리에이터 ‘100년 상회’ 육성	• 100년 유산 스토리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청년 창업 지원 • (예) 100년 빵집, 100년 사진관 등
	⑨ 전북 미래유산 엑스포 개최	• 춘향제 100년, 또는 군산 개항 시설과 변산해수욕장 100주년 연계 대규모 행사 • 전북 방문의 해 등 활용

(기념사업 예시) 1933 변산, 대한민국 바캉스의 출발: 100년의 파도, 1,000년의 노을

□ 주제

- “복고와 노을(Retro & Sunset)”
 - 1933년 개장 당시의 근대적인(modern) 감성(근대 낭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 단순한 물놀이 장소가 아니라, 노을과 예술이 있는 고품격 휴양지로 브랜딩

□ 4대 핵심 사업 구상

① (축제·행사) 모던-비치 페스티벌 1933 (The Great 1933)

- 100주년이 되는 2033년 여름, 변산해수욕장을 1930년대 분위기로 변신
 - 시간여행 드레스코드: 수영복이나 비치웨어 위에 1930년대 스타일(멜빵, 복고풍 원피스)을 걸쳐야 입장하거나 혜택을 주는 이색 파티
 - 스윙 재즈 온 더 비치: 전자음악 대신, 1930년대 유행했던 스윙재즈와 빅밴드 오케스트라가 해변 무대에서 라이브로 연주되는 파티·공연
 - 근대 모래조각 대회: 1933년 개장 당시의 신문 기사나 사진 속에 등장하는 풍경

② (공간·상징) 100년 노을 전망대와 기억관

- 물리적인 기념비를 넘어, 변산의 가장 큰 자산인 노을과 기억을 담는 공간
 - 노을 극장(Sunset Cinema): 바다 위에 대형 스크린을 띄우거나 백사장에 설치, 노을이 지고 나면 100년 전 영화나 바다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야외극장
 - 변산 기억관(팝업 뮤지엄): “그해 여름, 우리는 변산에 있었다”를 테마로 국민이 소장한 1950~90년대 변산해수욕장 바캉스 사진을 전시하는 아카이브 공간 조성

③ (체험·관광) “노을 명, 100년 명” 캠핑·스테이

- 젊은 층의 캠핑 수요를 흡수하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
 - 100주년 한정판 ‘레트로 텐트’ 존: 1930~70년대 스타일의 빈티지 텐트와 장비
 - 비치코밍 아트: 100년 간 파도에 밀려온 유리 조각(바다 보석) 등을 주워 공예품을 만드는 친환경 생태 예술 프로그램

④ (미식·굿즈) 변산의 맛 1933

-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식 콘텐츠
 - 변산 하이볼과 칵테일: 변산의 붉은 노을 색깔을 담은 상징 칵테일 개발(이름 예시: 1933 선셋, 모던보이의 눈물)
 - 아이스케끼(Ice Kekki): 옛날 아이스바를 현대적 맛(부안 붕, 오디 등)으로 재해석

□ 단계별 추진 계획

시기	단계	주요 내용
~2028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롱 속 변산의 추억을 찾습니다” 대국민 사진 공모전 • 개장 당시(1933년) 신문, 영상 자료 발굴 및 스토리텔링 개발
~2031	예비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던-비치 재즈 공연 등 시범 프로그램 운영 • 100주년 기념 랜드마크(전망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 및 착공
2032	D-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1년, 변산 방문의 해 선포 • 한정판 굿즈 사전 출시 및 팝업스토어 운영
2033	100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던-비치 페스티벌 1933> 개최

Vol. 338
ISSUE BRIEFING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